

#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곡성군 ‘대상’ 광양시 ‘최우수’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 구축·AI 전환 노력 호평  
읍면동 디지털 기술·공동체 역량 결합 서비스 구현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전국 읍면동 복지·안전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를 구축한 곡성군이 대상,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예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곡성군과 광양시가 대상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은 ‘스마트 지도 (Smart)·속도 (Speed)·안전 (Security)’을 핵심으로 하는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돌봄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스마트 (Smart)는 네이비지도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스마트 안전지도 구축을 의미하며, 속도 (Speed)는 위급 상황 시 ICT를 활용해 즉시 신고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안전 (Security)은 경찰·소방·이장·생활지원사 등 민·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안전망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 700가구를 촘촘히 돌보는 현장 밀착형 안전돌봄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을 주제로 ‘MY광양’ 앱 기반의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태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1대1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전국 읍면동 복지·안전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를 구축한 곡성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채팅 상담을 통해 복지 정보 제공부터 신청, 위기가구 발굴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수상으로 곡성군은 특별교부세 3500만원, 광양시는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군의 혁신적 복지·안전 정책이 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의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 시·군이 지역 특성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공동체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 복

지·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며 “앞으로도 시·군의 우수사례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 목포대, 중국 엔타이대와 학술교류 강화...“발전적 연구 협력”

제32회 한·중 학술심포지엄 개최...공동 연구 방향 논의  
신재생에너지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모색

목포대와 중국 엔타이대가 ‘제32회 한·중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양국 연구자 간 학술교류를 확대했다.

10일 목포대 국제협력처에 따르면 목포대는 최근 중국 엔타이대학과 함께 ‘제32회 한·중 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중 학술심포지엄은 양 대학이 매년 번갈아 진행해 온 대표적인 국제학술교류 행사로, 양교 연구자들이 각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에너지화학 및 약학 분야를 중심으로 개막식, 학술발표회,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육민호 목포대 약학대학 교수, 김성진 공과대학 학술연구 교수, 셀바르즈 발라 무루간 공과대 학술연구교수가 학술발표를 진행했으며, 양대학 발표자는 신재생 에너지 소재 개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약학 분야 연구 동향, 생명·의학 융합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양교는 또 심포지엄 마지막 날 차기 행사 개최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제33회 한·중 학술심포지엄은 2026년 중국 엔타이대학의 초청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에너지·바이오·환경 등 다양한 분



목포대는 최근 중국 엔타이대학과 함께 ‘제32회 한·중 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대전 중국 엔타이대학 약학대학 교수는 “국립목포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 역량과 열의를 보여줬다. 아직 양 대학 간 연구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고 발전적인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홍선기 국제협력처장은 “엔타이대학은 오래전 우리대학과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인문, 사회대학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이어왔다”며 “에너지화학학과 약학 분야에서 양교가 보유한 연구 역량을 융합하고 공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한전KPS, 나주소방대원에 감사의 마음 전달

간식차 지원·화재 예방 홍보

한전KPS는 나주소방서를 방문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을 격려하고자 간식차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식차 지원은 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도 진행됐다.

한전KPS는 겨울철 다발 화재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외출 시 난방기기 전원 차단, 장시간 사용 자제, 난방기기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을 강조했다.

나주소방 관계자는 “한전KPS의 따뜻한 응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계절별 화재 예방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읍면동을 중심으로 화재취약가구 안전꾸러미(연기감지기·스프레이식 소화기·미끄럼방지매트 등)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재)보성장학재단은 2026년 중학교 입학에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새학기 책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광주 동구, 저소득 학생에 새학기 책가방 지원

보성장학재단 후원...“다양한 나눔 활동 이어갈 것”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재)보성장학재단의 후원으로 2026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관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새학기 책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새학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모든 아이들이 포레와 동등한 출발선에서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앞으로도 장학·진로·문화 체험 등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 발굴해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과 연

대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매년 보성장학재단의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새학기 책가방’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매우 든든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장학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동아리 지원사업, 중학생 학습부교제비 지원 등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글·사진=최기문 기자 bluesky@



광주도시공사는 연말을 맞아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맞이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 광주도시공사 ‘김장김치 나눔’ 지역사회 온기

임대주택 등 600세대 지원...지역소멸 극복 릴레이 동참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연말을 맞아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맞이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김치 나눔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입주민과 취약계층 등 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약 3t의 김장 김치를 담아 전달했다.

김승남 사장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식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뿐 아

니라 다양한 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임직원들은 또 이번 김장 나눔을 계기로 ‘함께 돌보고 함께 웃으며,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잇는’ 광주광역시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광주시 7개 지방 공기업들이 참여하는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협의회’의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옥춘 이사장 직무대리의 지명을 받아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흥석 (주)럭키산업 회장이 40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기탁하며 광주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 박흥석 (주)럭키산업 회장, 4000만원 기부

광주사랑의열매 기탁...돌봄이웃에 장학금·생활용품

박흥석 (주)럭키산업 회장이 40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기탁하며 광주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박흥석 회장이 돌봄 이웃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과 생활용품 2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성금품은 △서구청학재단 돌봄 장학금 1000만원 △(사)고향사랑회 추천 돌봄 학생 장학금 1000만원 △서구 돌봄이웃 생활용품 2000만원 등 지역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전달식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8일 서광희 송년의 밤 행사에서 3000만원 상당의 성금품 기탁식이, 9일 (사)

고향사랑회 송년모임에서 1000만원 성금 기탁식이 각각 열렸다.

박흥석 (주)럭키산업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은 기업과 개인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나눔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박흥석 회장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56호 회원이자,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118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회장으로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